

2000년대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특성과 서사적 의미 - 〈킹콩을 들다〉를 중심으로

임정식*

〈차 례〉

1. 머리말
2. 2000년대 이전: 스포츠, 스포츠영화와 여성의 주변화
3. 2000년대 이후: 〈킹콩을 들다〉와 영웅 서사의 변주
4. 맺음말

【국문초록】

국내 스포츠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성격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된다. 2000년대 이전 스포츠영화에서 여성 인물은 조연 혹은 단역으로서 수동적, 순종적인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 시기의 여성 캐릭터는 남성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화해주고, 스포츠의 이분법적 성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강사

한 특징은 최초의 스포츠영화 <꿈은 사라지고>부터 <이장호의 외인구단>까지 지속해서 나타난다.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는 주체적,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한다.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도 10편가량 되며, 조연으로 등장하는 영화에서도 ‘행동하는 조력자’로서 남성 인물의 재탄생을 이끈다. 이 시기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특징은 1) 국가대표 주인공의 등장 2) 10대 소녀 선수들의 꿈과 도전 3) 행동하는 조력자의 부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킹콩을 들다>는 2000년대 스포츠영화와 여성 캐릭터의 특징이 함께 응축되어있는 작품이다. 실화의 영화화,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 같은 표면적인 특징 이외에 여성 주인공이 모험과 도전의 주체가 되고, 남성 인물의 재생과 부활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미천한 혈통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영웅 서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이 글이 살펴본 2000년대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특징은 스포츠영화의 제작 활성화와 함께 장르 영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 영웅 서사, 조력자, 킹콩을 들다

1. 머리말

스포츠영화는 2000년대에 양적, 질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우선 영화 시장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스포츠영화 제작이 활발해졌다. 2000년 이후 제작된 스포츠영화만 40편이 넘는다. 최초의 스포츠영화 <꿈은 사라지고>(1959) 이후 40년 동안 30편

남짓 제작된 것보다 더 많다. 흥행에 성공한 작품도 여러 편 나왔다. <말아톤>(2005)은 514만 명,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은 404만 명, <국가대표>(2009)는 848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또 국내 주요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받은 스포츠영화도 여러 편 있다.¹⁾ 스포츠영화가 다루는 종목이 다양해진 점도 특징이다. 특히 핸드볼, 스키점프, 경마, 수영, 볼링, 등산, 족구, 사이클 등 비인기 종목을 다룬 작품들이 증가했다.

스포츠영화의 변화는 내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성격이 이전 시기와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2000년대 이전 스포츠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성격이 제한적이었다. 이 시기의 여성 인물은 조연 혹은 단역에 머물렀으며, 남성 주인공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캐릭터가 많았다. 반면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모험을 서슴지 않는 주체적,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 여성 인물이 운동선수(국가대표)이자 주인공으로서 영화의 서사를 이끌고, 절망에 빠진 남성 인물의 재생과 부활을 매개하는 것도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다.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성격이 변화한 요인은 복합적이다. 스포츠영화 제작 편수의 증가,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현상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이다. 스포츠 현장에서 여성 운동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한 점이 스포츠영화의 여성 캐릭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김기수, 홍수환 등 스타 선수들이 잇달아

1) <말아톤>은 제25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10대 영화상, 정윤철 감독은 제26회 청룡영화상과 제42회 대중상 신인 감독상을 받았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제29회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과 제44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작품상 수상작이다. 또 <국가대표>의 김용화 감독은 제30회 청룡영화상과 제46회 대중상영화제 감독상의 주인공이 됐다.

세계챔피언이 되어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1960~80년대에 권투영화가 다수 제작되고, 고교야구의 폭발적인 인기와 프로야구 출범이 차례로 이어진 1970~80년대에 야구영화가 활발하게 제작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즉 스포츠영화가 여성 스타 선수들의 활약상을 직접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 선수들의 맹활약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시대적 현상이 맞물려 스포츠영화의 여성 캐릭터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

한국 스포츠에서 여성 선수들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맹활약했다. 올림픽의 경우만 해도,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우리나라 전체 금메달의 절반인 6개를 획득했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는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남성 선수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또 여자양궁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33년 동안 9연패를 달성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소재가 된 여자핸드볼 국가대표팀은 1984년 LA 올림픽부터 2004년 아테네올림픽까지 5개 대회에서 연속으로 은메달 3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올림픽 이외에 박세리, 장미란, 김연아 등도 스포츠영웅으로 커다란 인기를 누렸다.

이와 같은 시대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2000년대 한국 스포츠영화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면모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 인물이 조연 이상으로 등장하는 주요 스포츠영화를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이때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특징이 응축되어있는 <킹콩을 들다>(2009)의 인물과 내러티브를 검토함으로써 여성 캐릭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킹콩을 들다>는 실화의 영화화,²⁾ 비인기 종목, 여성 인물의 주체성, 10대

2) 이현중, 「한국 스포츠영화의 내러티브 관습과 사회문화적 함의」, 한양대

소녀 운동선수들의 모험과 도전, 남성 인물의 구원자 등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주요 특징이 모두 포함돼있는 작품이다.

스포츠영화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영화 텍스트의 스토리텔링 분석에 집중하거나³⁾, 영화와 스포츠의 관련성을 탐구하거나⁴⁾, 스포츠 사회학적 혹은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⁵⁾가 많았다. 한편 스포츠영화의 여성 인물에 대해서는 장승현·이혁기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정량 분석을 토대로 여성의 재현 양상에 주목하고 있어서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시대별 변화 양상과 서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⁶⁾ <코리아>(2012)를 민족/국가 담론과 함께 여성주의 관

석사 논문, 2010, 47-51쪽.

- 3) 문용식, 「〈말아톤〉 성장영화의 서사구조와 맥락적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25권, 2005; 임정식, 「스포츠영화의 영웅 신화 서사구조 수용과 의미」, 『인문콘텐츠』 제34권, 2014; 김지영·하용용, 「스포츠영화 “퍼펙트 게임”의 액션 분석」, 『체육사회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5; 이현중, 「2010년대 한국 스포츠영화의 스토리텔링 연구-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소비되는 스포츠영화의 장르성」, 『한민족문화연구』 제66권, 2019.
- 4) 이학준, 「영화 속의 스포츠 읽기」,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제45권 제4호, 2006; 박상민·정수현, 「스포츠 경기의 영화화에 따른 담화 전략 연구-〈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3권, 2010.
- 5) 서은아,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에 나타난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 『문학치료연구』 제22권, 2006; 이기천, 「스포츠영화 속에 나타난 양성평등의 교육적 의미 탐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제13권 제4호, 2006; 이현정, 「근대 한국 여성 스포츠의 발달 과정」, 단국대 박사 논문, 2010; 전상완·이종하, 「영화 〈4등〉을 통해 본 한국 스포츠평화 문화의 실상 고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9; 장승현·이근모, 「영화 〈킹콩을 들다〉로 재현된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현실 고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3.
- 6) 장승현·이혁기, 「한국스포츠영화 내 여성 재현의 양상: 2000~2018 개봉작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35권 제3호, 2021, 83-104쪽. 이 글은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여성 인물을 보조자(모성애적 인물/이성애적 인물)와 구원받는 자로 구분해 그 특징과 한계를 정리한다.

점에서 분석하면서 “남성의 부재 혹은 비정상성 속에서 여성 주체들의 ‘탈 여성화’를 강조하는 영화”⁷⁾라고 비판하거나, 미국 스포츠 영화 <그들만의 리그>(1992) 분석을 통해 여성 스포츠와 남성 중심 가부장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도 나와 있다.⁸⁾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특성과 서사적 의미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는 스포츠영화가 한국사회의 시대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의 발판이 될 것이다. 텍스트 분석은 “정량적 자료 분석으로 발견할 수 없는 내면화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히는데 사용되는 방법론”⁹⁾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정리한 영웅 신화의 서사구조, 할리우드 시나리오 분석가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캠벨의 이론을 토대로 분류한 캐릭터 원형, 국문학자 조동일이 우리나라 고대신화와 서사무가 등에 나타난 주인공의 행적을 분석한 뒤 정리한 인물 유형을 이론적 근거로 활용한다. 한편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특징과 시대별 변화 양상들 속에 “숨겨진 남성적 이데올로기 전략”¹⁰⁾과 사회문화적 함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7) 서재철·김동식, 「영화 <코리아(2012)>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비판적·대항적 읽기」, 『한국여성체육학회』제29권 제4호, 2015, 46쪽.

8) 최정은·이루지, 「스포츠영화에 나타난 여성 스포츠 이데올로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제16권 제2호, 2003, 447-463쪽.

9) 같은 논문, 448쪽.

10) 장승현·이혁기, 앞의 논문, 99쪽.

2. 2000년대 이전: 스포츠, 스포츠영화와 여성의 주변화

스포츠는 고대부터 남성들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도 출범 초기에는 여성들에게 배타적이었다. 주디스 스와들링에 의하면, 여성들은 기원전 776년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시작된 최초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당시 여성들은 전차 경기에 자신의 전차를 출전시키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올림픽에 참여했다. 여성들의 축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헤라 여신을 찬양하기 위해 4년마다 헤라이아(Heraia)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이 축제에서는 달리기만 치러졌는데, 주 경기장 트랙의 길이는 약 160m였다. 이는 올림피아의 트랙 길이 600올림픽피트(192.28m)보다 32m나 짧았다. 스와들링은 이 차이가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다는 그리스 남성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스포츠에서 여성에 대한 배타성은 근대까지 이어졌다. 1896년 시작된 근대 올림픽인 제1회 아테네올림픽에는 남성들만 출전했고,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여성들은 테니스 종목에만 출전 가능했다.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까지 여성 마라톤은 올림픽의 프로그램에 없었다.¹¹⁾

스포츠가 이처럼 “혜계모니적 남성성을 가장 분명하게 생산하고 유포하는 문화적 제도”¹²⁾이고, 스포츠영화가 그러한 이분법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현상은 2000년대 이전 국내 스포츠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스포츠영화에서 주인공은 모

11) 주디스 스와들링, 김병화 옮김, 『올림픽 2780년의 역사』, 효형출판, 2004, 45-70쪽.

12) Pringle, R. Masculinities, “*sport, and power: a critical comparison of Gramscian and Foucauldian inspired theoretical tool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9-3, 2005, pp. 256-278. 장승현 · 이근모 · 이남미, 「종합격투기에서 재현되는 남성성의 상징체계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0, 130쪽, 재인용.

두 남성이고, 여성 인물은 수동적인 조연 혹은 남성 주인공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생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스포츠가 여성을 주변화하고, 스포츠영화는 그러한 여성을 다시 주변화하는 ‘이중의 주변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전 스포츠영화를 여성 캐릭터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스포츠와 스포츠영화가 여성에 대하여 갖고 있던 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 운동선수의 애인이거나 여동생으로만 등장하며, 서사 전개에서도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한다.

노필 감독의 권투영화 <꿈은 사라지고>(1959)는 국내 스포츠영화의 효시로 꼽히는 작품이다. 한국영상자료원 데이터베이스 소개글에 따르면, <꿈은 사라지고>는 김석야 작가의 KBS 라디오 연속극을 각색해 만든 영화이다. 현재 필름은 없고 시나리오만 남아 있다. <꿈은 사라지고>에는 최무룡, 문정숙, 엄앵란, 도금봉 등 스타 배우들이 출연했고, 당시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의 주인공은 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둔 국가대표 권투 선수이다. 이 복서에게는 청초하고 아름다운 애인이 있었는데, 그는 애인의 직업이 카바레 여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실의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낸다. 하지만 그는 코치의 끈질긴 설득과 격려로 훈련에 매진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다.¹³⁾ 즉 <꿈은 사라지고>는 여성 인물의 직업으로 인해 방황하던 남성 주인공이 그 시련을 딛고 목표를 달성하는 영웅 서사인 셈이다.

<꿈은 사라지고>에서 여성 인물의 성격은 주제가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성 인물의 심정을 표현한 ‘나는 가야지’라는 주제가의 2절 가사는 “아름다운 꿈만을 가슴 깊이 안고서/외로이 외로이 저 멀리 나는 가야지/사랑을 위해 사랑을 버린 쓰라린 이 마음/다시 못

13)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443&keyword=꿈은 사라지고.

오는 머나먼 길을/말없이 나는 가야지.”이다. 이 영화에서 ‘청초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카바레 여급’이라는 직업이 드러내는 여성 인물의 이미지는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설정이다. 그리고 남성 주인공은 애인의 직업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여성 인물은 애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한다. <꿈은 사라지고>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성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캐릭터로 묘사된다.

<내 주먹을 사라>(1966)는 국내 최초의 권투 세계챔피언인 김기수 선수가 주인공 ‘그’로 출연한 영화이다. 김기수 선수는 1958년도쿄 아시안게임에서 웰터급 금메달을 획득했고, 1965년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WBA 주니어미들급 타이틀매치에서 이탈리아의 니노 벤베누티 선수를 꺾고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스타였다. 이 영화에서 미들급 챔피언인 ‘그’는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급소를 가격해 숨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은퇴한 후 철공소를 다니며 상대 선수의 두 동생을 도와준다. 이후 코치의 유언을 따르는 동시에 상대 선수 남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링에 올라 다시 챔피언이 된다.

<내 주먹을 사라>에는 여성 인물이 두 명 등장한다. ‘그’에게 급소를 맞고 사망한 권투 선수의 여동생(김지미 분)과 ‘그’를 가르치던 체육관 관장의 딸이다. 권투 선수의 여동생은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술집에 나가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성적인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다. 이 여동생은 자립 의지가 강하고,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면도 일부 보여준다. 그러나 여동생은 기본적으로 ‘그’가 도와주려고 하는 인물이자 ‘그’의 영웅성을 강화해주는 역할에 머무른다. 또 여동생은 남성들의 성적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체육관 관장의 딸은 ‘그’의 훈련을 기계적으로 보조해주는 단역일 뿐이다. 즉 <내 주먹을 사라>에서도 여성 인물은 수동적, 보조적인 캐릭터로만 등장한다.

초기 권투영화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위상과 성격은 1980년대 작품에서도, 종목이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현세의 베스트셀러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을 각색한 야구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1986)에서 엄지(이보희 분)는 남성 인물들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데 엄지는 오혜성(최재성 분)과 마동탁(맹상훈 분) 사이에서 방황을 거듭한다. 엄지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그로 인해 사랑의 대상이 오혜성→마동탁→오혜성→마동탁으로 계속 바뀐다. 게다가 엄지는 이기적인 면모도 지닌 인물이다. 엄지는 마동탁과 결혼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혜성에게 경기에서 쳐달라고 부탁한다.

엄지는 오혜성에게 순결한 성녀인 ‘팜 프라질(femme fragile)’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오혜성이 엄지와 재회하자마자 주고받은 편지 꾸러미를 보여주며 “네가 곧 나에겐 신이었고 그 편지가 성전이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반면 마동탁에게 엄지는 자신의 승부 근성과 자존심을 확인하기 위한 쟁취의 대상이다. 그러나 순결한 성녀이든 쟁취의 대상이든, 엄지의 이미지와 성격이 남성 인물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장호의 외인구단>에서는 엄지 이외의 여성 인물들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된다.¹⁴⁾

<이장호의 외인구단>은 원작만화의 인물 구도와 성격, 스토리, 플롯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만화평론가 김창남은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이 대중적으로 성공한 배경에 대해 “힘의 신화

14) 이 영화에서 엄지의 어머니는 딸에게 가난한 오혜성보다 돈 많은 스타인 마동탁과 교제하도록 강권하는 속물로 등장한다. 또 땅딸보 최경도가 구애하는 은행원과 그 동료들도 돈을 최고의 결혼 조건으로 여긴다. 엄지의 어머니, 은행원들이 조연 혹은 단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장호의 외인구단>에 나타난 1980년대 시대상에 대해서는 ‘임정식, 『1980년대 스포츠영화의 시대적 표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제1호, 2019, 315-347쪽.’ 참조.

와 사랑의 신화를 절묘하게 혼합한 작품”으로서 “그 두 가지가 대중의 가장 보편적인 관심사라는 점에서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는 당연한 일”¹⁵⁾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에서도 강렬한 힘과 낭만적인 사랑의 주체는 오혜성이며, 엄지는 그 대상에 불과하다. 결국, <꿈은 사라지고>의 애인과 <내 주먹을 사라>의 여동생, <이장호의 외인구단>의 엄지는 서사적인 측면에서 남성 주인공의 영웅성을 강화해주는 여성 캐릭터라는 한계를 노출한다. 즉 2000년대 이전 스포츠영화는 기본적으로 남성 영웅 서사이며, 이들 영화에서 여성 인물은 영웅적인 남성 주인공의 보조 캐릭터로 등장할 뿐이다.

3. 2000년대 이후: <킹콩을 들다>와 영웅 서사의 변주

한국 스포츠영화에서 1990년대까지는 권투와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다. 권투영화는 1960년대 <피 묻은 대결>(1960), <가슴에 꿈을 가득히>(1963)를 비롯해 1980년대 중반까지 <울지 않는 호랑이>(1984), <신의 아들>(1986), <지옥의 링>(1987), <카멜레온의 시>(1988) 등이 꾸준히 제작됐다. 또 <태양은 없다>(1999)는 KO로 패해 은퇴한 뒤 펀치 드링크로 고통받던 도철이 건달 친구를 만나 방황하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경기를 갖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러나 권투영화는 2000년대에는 <챔피언> (2002)과 <주먹이 운다>(2005) 두 편만 제작됐다. 권투의 인기 퇴조와 함께 권투영화 제작도 급격하게 줄었다.¹⁶⁾

15) 김창남, 「영웅 없는 시대의 영웅 신화, 이현세의 까치」, 광대원 외, 『한국 만화의 모험가들』, 열화당, 1996, 78쪽.

16) 프로권투는 1980년대까지 최고 인기 스포츠로 군림했다. 1960, 70년대 우리 사회의 첫 번째 목적은 가난의 탈피였기 때문에 국민의 일차적인

권투영화가 쇠퇴한 원인으로는 흥행 실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1980년대 제작된 <신의 아들>은 3만3493명, <지옥의 링>은 1만8747명, <카멜레온의 시>는 9779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세 편의 권투영화는 박봉성, 이현세, 허영만의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했다. <태양은 없다> 역시 작품성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32만9778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주먹이 운다>가 172만8477명을 기록했으나, 권투의 인기 감소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¹⁷⁾

2000년대에 접어들어 권투의 인기가 퇴조하고 영화 시장 팽창에 따른 제작 수요가 커지면서 스포츠영화는 비인기 종목에 눈을 돌렸다. 경마, 탁구, 역도, 아이스하키 종목을 소재로 한 스포츠영화가 여성 선수를 비중 있게 다뤘고, 이 과정에서 운동선수인 여성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서는 여성 인물이 주인공인 작품만 해도 10편가량 된다. 특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코리아>(2012), <국가대표 2>(2016)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여성 인물은 조연으로 등장하는 작품에서도 남성 주인공의 인생에 전환점을 마련해주거나(<YMCA 야구단>, <투

관심은 의식주 해결과 경제 여건 개선이었다. 이것은 도전의식이 강한 프로권투와 정서적으로 부합해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운동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손수범, 「경제성장에 따른 프로스포츠의 변천」, 『한국체육학회지』제43권 제6호, 2004, 10쪽.) 하지만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한국권투위원회에 등록된 프로권투 선수 수는 1987년 1,075명에서 2000년에는 115명으로 급감했다.

- 17) 권투영화의 퇴조와 달리 야구영화는 고교야구의 인기를 잇는 프로야구의 성공을 배경으로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야구영화는 2000년대에만 <YMCA 야구단>, <슈퍼스타 감사용>, <퍼펙트게임>, <글러브>, <투혼> 등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한국 프로야구는 2017년에 840만 명, 2018년에는 807만 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혼>, <전설의 주먹>), 남성 인물이 정신적으로 재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글러브>, <미스터 고>). 이 여성 인물들은 대부분 미친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 즉 식민지 여성, 고아,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는 ‘아줌마 3총사’, 탈북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열악한 환경에 굴복해 꿈을 포기하는 인물은 없다.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여성 캐릭터는 주체적, 진취적, 능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1) 모험과 도전 주체로서의 여성

<킹콩을 들다>(2009)는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특징이 집약되어있는 영화이다. <킹콩을 들다>는 전남 보성 지역 역도부 학생들이 2000년 제81회 부산 전국체전에서 총 15개의 금메달 중에서 14개를 차지하고, 출전선수 5명 가운데 4명이 3관왕에 오른 실화를 각색한 영화이다. 지도자들 가운데 정인영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역도 남자 52kg급 금메달리스트인 전병관 선수를 키워내기도 했는데, 전병관 선수는 그 인연으로 <킹콩을 들다>에 헤드 코치로 출연했다.¹⁸⁾ <킹콩을 들다>의 서사는 역도 문외한이었던 여중생 영자(조안 분)가 이지봉 코치(이범수 분)의 지도로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을 다룬다. 이때 영자는

18) <킹콩을 들다>는 국내 최초로 역도를 소재로 한 영화이며, 127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2000년 전국체전 신화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출연 배우들은 체중 늘리기, 대나무 봉 들어 올리기, 자갈밭에서 쇠사슬로 묶은 타이어 끌기, 산 정상까지 바벨 들고 뛰기, 겨울 냇가에서 빨래하기와 같은 훈련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주목을 받았다. 영화 촬영은 보성 여중이 위치한 전남 보성군에서 90% 이상 진행됐으며, 보성군은 제작비와 장소, 역도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 영화로 박건영 감독은 제17회 춘사국제영화제 신인 감독상, 이범수는 제29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남우주연상, 조안은 제17회 춘사국제영화제와 제46회 백상예술대상 신인여우상을 받았다.

모험과 도전의 주체로서 영웅 서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전 세계 영웅 신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영웅을 두 종류로 나눈다. 여행을 스스로 선택하는 영웅과 여행에 던져지는 영웅이다. 전자의 영웅은 모험살이의 필요에 반응하여, 자진해서 그 일을 하러 떠난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테네 여신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는 여행, 수메르의 이난나가 하계로 가서 애인을 지상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여행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징집 영장을 받고 입대하는 여행을 들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영웅의 모험은 보통 무엇인가를 상실한 사람, 자기 동아리에 허용되어있는 정상적인 경험에 모자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 시작된다.¹⁹⁾ 이때 자발적인 여행이든 비자발적인 여행이든 결과는 같다. 영웅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과업을 달성한 후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온다.

〈킹콩을 들다〉에서 영자를 포함한 여중생들은 ‘여행을 스스로 선택한 영웅’에 해당한다. 이 영화에서 6명의 여학생은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로 역도부에 가입한다. 주인공 영자는 고아이면서 학교 사격부에서도 쫓겨난 ‘미친한 혈통’의 인물이다. 영자는 쓰레기장에서 역도와 관련된 상장과 사진을 태우는 이지봉에게 접근한 후, 자신이 역도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쓰레기 포대를 번쩍 들어 옮기면서 “제가 이래봐도요, 쌀 한 가마니 거뜰 들고요. 힘도 세서 어른들이 역도 하면 잘할 거다, 잘할 거다 그랬는디.”라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영자의 주체성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험을 시작한 데서 확보된다

〈킹콩을 들다〉의 여학생들이 역도부에 가입한 이유는 각양각색

19)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229-238쪽.

이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인가를 상실했거나, 무엇인가가 결핍된 존재들이라는 점은 똑같다. 테니스부원인 보영(김민영 분)은 똥똥하다는 이유로 롤러를 끌거나 경기장의 돌을 줍는 신세이며, 여순(최희서 분)은 편모 가정의 생활보호대상자이다. 판소리가 특기인 수옥(이슬비 분)에게는 역도부가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한 뒤 미국 FBI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다. ‘사차원 소녀’ 민희(이윤희 분)는 친구들의 따돌림 대상이다. 이 여중생들은 역도 관련 지식이나 경험, 정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결핍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전을 감행한다.

〈킹콩을 들다〉의 서사를 영자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영자는 사격부에서 쫓겨나고 돌봐주던 마을 할머니도 사망한다. ②이지봉을 찾아가 역도부에 지원한다. ③숙식 해결이 가능한 합숙소에서 생활한다. ④지역대회에 출전했다가 망신만 당한다. ⑤이웃 학교 체육 교사의 계약으로 합숙소가 폐쇄된다. ⑥훈련을 거듭해 지역대회에서 우승한다. ⑦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지봉과 헤어진다. ⑧이지봉이 심장병으로 사망한다. ⑨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한다.’이다. 이 영화에서 영자는 역도선수로 훈련하고 활동하는 동안 소녀에서 어른으로 성장한다. 영자의 행동은 모험의 자발성과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신화 속의 텔레마코스과 이난나 혹은 〈단군신화〉의 웅녀와 유사하다.²⁰⁾

20) 〈단군신화〉에서 웅녀에게 벌어진 양대 사건은 변신과 출산이다. 변신은 곶에서 사람으로 재탄생한 것이고, 출산은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은 일이다. 『삼국유사』의 원문에는 변신과 출산에 관하여 “시유일웅일호 동혈이거 상기우신웅 원화위인(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과 “웅녀자 무여위혼 고매어단수하 주원유잉(熊女者 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12, 20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웅녀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원한 행위는 “모든살이의 필요에 반응하여 자진해서 그 일을 하러 떠난” 행위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웅녀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소명을 수용한 인물이 된다. 〈단군신화〉에서 웅녀는 ‘원한다(願)’는 행위

영자에게는 극복해야 할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영자가 역도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다. 보성여중 역도부는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대회에 강제로 출전해 굴욕을 당한다. 역도부가 승승장구하자 이번에는 외부 세력의 불순한 음모로 합숙소 ‘수능당’이 폐쇄된다. 선수들은 인근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코치의 폭언과 폭행, 차별을 견디다 못해 역도를 포기할 결심까지 한다. 그 와중에 이지봉 코치는 확장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영자는 좌절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해 태극마크를 단다.

국가대표 선수는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여성 캐릭터이다. 운동선수인 여성 주인공은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 유형인데,²¹⁾ 여기에 각 종목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국가대표라는 요소가 추가됐다.²²⁾ 국가대표 선수는 특정 종목 최고의 실력자가 프로타고니스트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스포츠영화에서 여성 인물들은 국가대표라고 해도 ‘민중 영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역도, 핸드볼, 탁구, 아이스하키 등 비인기 종목의 선수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의 주체이다. <킹콩을 들다>의 영자와 <단군신화>의 웅녀의 행적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웅녀와 영자의 행적은 인물의 주체성과 서사의 모티브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꿈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원한 행위는, 영자가 역도부원이 되기 위해 이지봉 코치와 인터뷰하는 장면과 겹쳐진다. 그렇다면 영자는 웅녀, 이지봉 코치는 환웅에 대응하는 인물이 된다. 또 웅녀가 사람으로 재탄생한 곳은 동굴이다. 영자에게는 역도부 합숙소 ‘수능당’이 동굴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영자는 가난하고 무력한 소녀에서 자아를 지닌 성인으로 재탄생한다(임정식, 『스포츠영웅의 비밀』, 태학사, 2018, 241쪽).

- 21) 장승현·이혁기는 ‘스포츠 하는 여성’의 재현 양상 분석을 후속 연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앞의 논문, 99쪽.
- 22) 국가대표인 여성 운동선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이외에 경마 영화 <각설탕>과 <그랑프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자 기수가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국문학자 조동일은 우리나라 고대신화, 서사무가 등에 나타난 주인공 열두 명의 일생을 분석한 후 그들을 상층영웅과 민중 영웅으로 분류했다. 그중에서 민중 영웅의 일생은 ‘1) 미천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2)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3)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이야기 단락으로 정리된다. 신분의 제약을 지니고 태어난 민중 영웅의 일생은 고난으로 시작된다.²³⁾ 즉 민중 영웅은 혈통은 미천하지만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아기 장수와 우뚜리, 의병장 김덕령 등이 민중 영웅에 해당한다. 반면 상층영웅의 일생은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탁월한 능력, 기아, 위기 극복, 승리 자라는 화소로 구성된다. 주몽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국가대표인 여성 주인공 중에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 거의 없다. 이는 스포츠영화에서 혈통이 가난, 질병, 고아, 장애, 부상, 명예의 실추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인물과 관련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조건이나 환경까지 포함한다는 점과 관련된다.²⁴⁾ 예를 들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한미숙(문소리 분)은 올림픽 결승전 전날 밤에 남편이 빗 독촉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혜경(김정은 분)은 “이혼을 빙자하여 여성이라는 이름 아래 주어지는 편견”²⁵⁾으로 인해 감독직에서 물러난다. <국가대표2>의 탈북자 리지원(수애 분)은 식당 일을 하면서 외롭게 생활하는 이방인이다.

그런데 영자를 포함한 ‘국가대표 여성 주인공’들은 민중 영웅의 이야기 단락을 극복한다. 물론 표층 서사에서는 이들이 경기에서

23)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55-56쪽.

24) 임정식, 「스포츠영화와 영웅 신화의 인물 유형 비교」, 『문학과영상』 제15권 제4호, 2014, 974-975쪽.

25) 정한석, 「미숙 씨는 어떻게 됐을까?」, 『씨네21』, 2008, 01, 3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49987

패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²⁶⁾ <킹콩을 들다>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영자의 금메달 획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 그런데 심층 서사에서 이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는다. “현대의 영웅은 혈통이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진정한 영웅성을 획득”²⁷⁾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고아, 부상, 이방인과 같은 미천한 혈통의 인물이지만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말에서 내면의 성장과 정신적인 재탄생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영웅 서사의 주인공이 된다. <킹콩을 들다>는 신화적 영웅 서사의 현대적 변용인 셈이며, 그 밑바탕에는 영자가 실행한 모험의 주체성이 자리 잡고 있다.

2) 행동하는 조력자 혹은 정신적인 스승

<킹콩을 들다>는 이지봉과 영자의 플롯이 병립하는 이중 플롯으로 되어있다. 이지봉이 절망을 이겨내고 영자를 국가대표로 키운다는 서사와 영자가 이지봉의 재생과 부활을 매개하는 서사가 공존한다. 이를 사건의 주인공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지봉→이지봉+영자→영자’의 순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이지봉+영자’의 서사에서 이지봉과 영자는 서로에게 조력자이자 정신적인 스승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중 플롯은 <킹콩을 들다>가 이지봉의 이야기인 동시에 영자의 이야기라는 점을 알려준다. 그리고 영자는 모험과 도전의 주체라는 영웅적인 면모 이외에 이지봉의 조력자 혹은 재생과 부활을 이끄는 정신적인 스승이라는 점에서 복

26)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아테네올림픽 결승전에서 덴마크에 패한다. <국가대표2>의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1승 1무 2패를 기록해 메달 획득에 실패한다. 그런데 <국가대표2>의 소재가 된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은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에서 1득점 80실점으로 4전 전패를 기록했다.

27) 임정식, 앞의 논문, 993쪽.

합적인 캐릭터로 등장한다.

조력자(협력자) 혹은 정신적인 스승은 영웅을 도와주는 캐릭터이다.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 크리스토퍼 보글러는 영화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유용한 캐릭터 원형을 영웅, 정신적 스승, 관문 수호자, 전령관, 변신 자재자, 그림자, 협력자, 장난꾸러기/익살꾼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정신적인 스승은 영웅을 돕거나 가르치는 긍정적인 인물이며, 지식과 지혜의 꾸러미를 전수해 주는 존재이다. 도움의 형태는 마법의 병기, 중요한 열쇠나 단서, 음식, 생명을 좌우하는 충고 등으로 다양하다. 정신적 스승의 원형은 부모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 정신적 스승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영웅에게 동기를 부여해 두려움을 떨쳐내게 돕거나 영웅이 모험을 감행하게 하는 것이다.²⁸⁾

조력자는 영웅의 여정을 함께하는 인물이자 절친한 단짝이다. 협력자는 동반자, 논쟁 상대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영웅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나게 하고 치우친 것을 바로잡는다. 이 단짝은 영웅과 싸우기도 하고, 충고와 경고를 하고, 도전하기도 한다. 그리스신화의 오디세우스와 선원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등이 영웅과 조력자의 관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²⁹⁾ <킹콩을 들다>에서는 이지봉과 영자가 영웅과 조력자, 정신적인 스승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영자와 역도부원들이 영웅인 동시에 조력자, 정신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는 점은 이지봉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지봉은 부상으로 은퇴한 뒤 나이트클럽의 호객꾼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옛 감독의 소개로 보성여중 역도부 감독이 되지만, 자신의 소명인 선수 지도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한낮에 낚시하러

28) 크리스토퍼 보글러, 함춘성 옮김,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비즈앤비즈, 2013, 79-84쪽.

29) 같은 책, 110-111쪽.

가고, 훈련시간에는 의자에 누워서 코를 골며 잠을 잔다. 이지봉이 역도에 다시 애정을 쏟게 된 것은 영자를 비롯한 역도부원들의 간절한 희망 때문이다. 역도부원들은 반강제로 출전한 첫 대회에서 망신과 수모를 겪은 후 합숙소에 모여 슬픔을 나눈다. 그리고 낯 시터에서 돌아온 이지봉에게 “불쌍해서 뽑아준 건가요?”, “왜 역도 안 가르쳐 주신대요?”라고 거칠게 항의한다. 이 과정에서 영자와 이지봉이 나눈 대화는 이지봉의 정신적인 재탄생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박영자 선생님이 고아원 원장인갑네요. 밥하고 잠자리 챙겨준 거네요.

이지봉 나 봐라. 좋아 보이냐? 이걸 하면 안 되는 운동이라서, 못된 운동이라서 안 가르쳐준 거야. 어디 가서 씨먹을 데가 없어.

박영자 나는요. 이거 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이거 열심히 해서 자립하고 싶은디.

이지봉 이놈들아. 금메달 못 따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박영자 선상님이 왜 아무 쓸모도 없대요. (목에 걸었던 이지봉의 동메달을 꺼내며) 이거 아무나 따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헌대요. 인자 선생님이 내다 버린 이런 거 필요 없을 게 가져가세요. 열심히 운동해서 내 거 보란 듯이 내가 딸란게요.

이 합숙소 시퀀스 이후에 이지봉은 본격적으로 모험을 감행한다. 그는 역도부를 취미반과 “역도에 목숨 거는” 선수 반으로 나눠 본격 훈련을 시작한다. 이지봉은 역도 코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승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허리 부상을 이유로 경기 출전을 포기하려는 영자에게 “동메달을 뺏고 해서 그 사람 인생까지 동메달이 되는 건 아니야.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금메달이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격려한다. 이지봉의 이 대사는 그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영자와 역도부원들을 지도한 그의 행적 자체가 금메달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지봉과 영자의 관계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대위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프롤로그의 배경은 88서울올림픽 역도 경기장이다. 이지봉은 바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다. 카메라는 그의 팔꿈치 뼈가 어긋난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 에필로그의 배경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역도 경기장이다. 영자는 금메달을 향해 힘차게 바벨을 든다. 영자는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무려 5kg이나 무게를 올리는 모험을 한다. 영화는 최종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채 끝난다. 어찌 되었든, 〈킹콩을 들다〉는 이지봉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자의 이야기로 끝난다. 이는 이지봉과 영자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성이다.

이지봉은 역도 코치, 정신적인 스승, 역도부원들의 식사와 공부까지 책임지는 (유사) 아버지이다. 그래서 이지봉과 영자는 형식적으로는 수직적인 관계이다. 하지만 영자와 이지봉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가 아니다. 영자는 이지봉을 ‘정신적 죽음’의 상태에서 구해내 모험을 하도록 만든 조력자이자 재생과 구원의 매개자이다. 〈꿈은 사라지고〉와 〈내 주먹을 사라〉, 〈이장호의 외인구단〉의 여성 인물들과 비교하면, 영자의 이러한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 즉 영자는 모험의 주체이자 정신적인 스승, 재생과 부활의 매개자로서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특징을 실현한 여성 캐릭터이다.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서 ‘행동하는 조력자’ 캐릭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킹콩을 들다〉의 영자처럼 남성 인물의 구원자 혹은 정신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는 캐릭터이다. 〈YMCA야구단〉(2002)의 민영림(김혜수 분)은 조선 최초의 야구단인 YMCA 야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신여성이다. 일본 유학과인 민영림

은 과거제도 폐지로 실의에 빠져 있던 이호창(송강호 분)을 야구에 끌어들이는데, 이 영화에서 야구는 신문물인 동시에 항일운동의 수단이기도 하다. <글러브>(2011)의 나주원(유선 분)은 충주성심학교 음악 교사로서 프로야구 MVP 출신의 말쑥꾸러기 코치 김상남(정재영 분)과 청각장애 야구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민영림과 나주원은 남성 인물의 정신적인 변화와 성장을 주도한 ‘행동하는 조력자’이다.

<말아톤>과 <4등>(2016)의 엄마들은 아들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나쁜 엄마’이다. <말아톤>의 경숙(김미숙 분)과 <4등>의 정애(이향나 분)는 아들의 훈련 스케줄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자를 섭외하고, 경기장에 가서 아들의 경기를 관전하고 간섭하는 ‘헬리콥터 맘’이다. 그래서 두 엄마는 각자 아들과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역설적이다. 경숙과 정애는 ‘행동하는 조력자’로서 아들의 행동을 압박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의 내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두 영화 모두 결말에서는 엄마와 아들의 갈등이 해소된다.³⁰⁾ <말아톤>과 <4등>의 엄마 캐릭터 역시 2000년대 이전의 스포츠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다.

그렇다면 <킹콩을 들다>는 2000년대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특징이 집약되어있는 작품이 된다. 영자는 <킹콩을 들다>에서 여성 영웅과 조력자라는 두 가지 캐릭터로 등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30) 오스트리아 아동 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에 의하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엄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옛이야기에서 엄마는 아이의 보호자이지만, 아이는 엄마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엄마를 사악한 계모로 바꾼다. 이는 아이가 엄마의 좋은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엄마를 둘로 분리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착한 엄마와 나쁜 엄마가 같은 인물일 리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시공주니어, 1998, 111쪽.) 그러한 점에서 두 영화의 ‘나쁜 엄마’ 이미지는 엄마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계모 캐릭터가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초원은 ‘다섯 살 지능을 가진’ 아이이고, 진호는 초등학생이다.

대로 영자는 모험과 도전의 주체이자 영웅 서사의 주인공이다. 동시에 영자는 절망에 빠진 남성 주인공의 부활을 이끄는 조력자이면서 정신적인 스승의 역할까지 한다. <킹콩을 들다>는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이 동시에 등장하고, 그들이 서로 정신적 재탄생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상징적인 작품이 된다.

3) 10대 운동선수와 ‘소녀 영웅’의 등장

10대 소녀 운동선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도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새로운 현상이다. <견기왕>(2016)은 선천적 멀미 증후군으로 인해 학교까지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니는 여고생 만복(심은경 분), <야구소녀>(2020)는 고교 야구팀의 유일한 여성이자 강속구 투수로서 프로선수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수인(이주영 분)이 주인공이다. 만복은 우리 사회의 성공과 경쟁 이데올로기, 주수인은 여성에 대한 편견에 도전한다. 만복과 주수인은 <킹콩을 들다>의 영자와 유사한 캐릭터이다. 그들은 미친한 혈통을 지니고 있지만, 강인한 의지로 시련을 극복하고 꿈을 펼쳐나가는 ‘소녀 영웅’이다.

국내 스포츠영화에 아마추어 학생선수가 등장한 사례는 적지 않다. 1970년대 중반에 잇달아 제작된 야구영화 <영광의 9회말>(1977), <고교 결전 자! 지금부터야>(1977)는 고교생 야구부, <엄마 없는 하늘 아래3-병아리들의 잔칫날>(1978)은 초등학교 야구부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런데 <영광의 9회말>과 <고교 결전 자! 이제부터야>는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가 남자고교 팀의 감독으로 부임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글러브>의 프로야구 MVP 출신 김상남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제명될 위기에서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코치로 부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설정은 <킹콩을 들다>에서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이지봉이 방황을 거듭하다가 보성여중에 부임하는 서사로 연결된다. 그런데 <킹콩을 들다>에서는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상이 사춘기 여학생들이다. 이 10대 초반의 여학생 선수들은 2000년대 이전의 스포츠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 유형이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취미반을 거부하고 선수 반에서 활동하며, 혹독한 훈련을 거쳐 지역대회에서 우승해 카퍼레이드까지 한다. <견기왕>과 <야구소녀>에서도 학생선수들이 모험과 도전의 주체로 등장한다. 그러한 점에서 10대 소녀 운동선수는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새로운 징후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중에서 <야구소녀>의 주수인은 여성이 지닌 신체적인 능력과 이분법적 성 이데올로기, 가난한 집안 형편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린다. 주수인은 여자 투수로서는 가장 빠른 134km의 강속구를 던지지만, 실제 프로야구에서 이 구속은 최저 수준이다. 주수인은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자 엄마의 강요로 공장에 취직하기도 한다. 또 주수인은 감독과 코치가 “넌 여자라서 안 돼.”라고 포기를 강요하자 “야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라고 반박한다. 그리고 주수인은 너클볼을 연마해 마침내 프로야구 2군에 지명되는데, 이는 “난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라는 자신의 말을 실천한 것이 된다. 주수인은 꿈을 이루기 위해 모험을 감행한 주체이며, 스포츠계의 이분법적 성 이데올로기를 극복한 여성 캐릭터이다.

10대 소녀 운동선수가 주인공인 스포츠영화는 성장영화의 성격을 지닌다. 그들은 성인인 남성 지도자의 정신적인 변화까지 유도한다. 이러한 특징은 <킹콩을 들다>의 영자와 <야구소녀>의 주수인에게서 발견된다. <야구소녀>에서 야구팀 감독과 코치는 여자 선수의 한계를 거론하며 주수인에게 야구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데, 주수인은 이를 거부하고 프로 진출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리

고 주수인의 의지에 감동한 최진태 코치는 결국 여성 선수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주수인을 헌신적으로 지도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영자와 주수인이 ‘소녀 영웅’ 캐릭터로 등장하고 영자와 이지봉, 주수인과 최진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정된 인물 구도는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새로운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4. 맺음말

한국 스포츠영화는 2000년대에 질적,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특히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성격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꿈은 사라지고>, <내 주먹을 사라>, <이장호의 외인구단>과 같은 2000년대 이전 스포츠영화의 여성 캐릭터는 조연 혹은 단역으로서 수동적, 순응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 남성 주인공을 위해 자신을 무조건 희생하는 캐릭터도 일반적이었다. 반면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여성 인물은 모험과 도전의 주체로서 능동적, 진취적인 영웅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또 절망에 빠져 있거나 왜곡된 선입견을 지닌 남성 인물의 재생과 변화를 이끄는 매개자로 등장하는 사례도 많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여성 캐릭터는 1) 국가대표 주인공의 등장, 2) 10대 소녀 운동선수들의 꿈과 도전, 3) 행동하는 조력자의 부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킹콩을 들다>의 영자는 모험과 도전의 주체, 재생과 부활의 매개자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 된다. 영자를 포함하여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여성 캐릭터는 가난, 고아, 부상과 같은 미천한 혈통으로 고통받는 민중 영웅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며, 설령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내면 성장과 정신적인 재탄생을 경험한다. 남성 인물을 구원하는 여성 캐릭터의 등장

도 이 시기 스포츠영화의 특징이다. 그러한 점에서 〈킹콩을 들다〉의 서사는 영웅의 면모를 지닌 여성 주인공의 일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000년대 스포츠영화의 여성 캐릭터 묘사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 핸드볼협회 회장은 김혜경의 이혼 경력을 문제 삼고, 김혜경은 이에 “남자여도 그랬을가요”라고 소극적으로 항의할 뿐이다. 또 〈코리아〉는 ‘여성 주체들의 탈 여성화를 강조하는 영화’이고, 〈킹콩을 들다〉에 “여성(수혜자)-남성(구원자)의 구조”³¹⁾가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영화의 여성 캐릭터가 점차 주체적, 진취적, 능동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여성 캐릭터의 한계 혹은 약점을 극복한 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활성화 된다면 스포츠영화가 장르 영화로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은 국내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특징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정리했다. 먼저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성격이 변화한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어서 〈킹콩을 들다〉를 중심으로 2000년대 스포츠영화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특징과 영웅 서사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스포츠영화의 제작 활성화와 장르 영화 논의를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영화 여성 캐릭터의 변화 양상을 한국 사회의 시대상과 직접 연결해 분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31) 장승현·이혁기, 앞의 논문, 95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건영, 〈킹콩을 들다〉, 2009.
이장호, 〈이장호의 외인구단〉, 1986.

2. 논문

- 서재철·김동식, 「영화 〈코리아(2012)〉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비판적·대항적 읽기」,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제29권 제4호, 2015, pp. 35-53.
손수범, 「경제성장에 따른 프로스포츠의 변천」,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6호, 2004, pp. 3-14.
이현중, 「한국 스포츠영화의 내러티브 관습과 사회문화적 함의」, 한양대 석사 논문, 2010.
임정식, 「스포츠영화와 영웅 신화의 인물 유형 비교」, 문학과영상학회, 『문학 과영상』 제15권 제4호, 2014, pp. 973-997.
_____, 「1980년대 스포츠영화의 시대적 표상 연구」,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 연구』 제25권 제1호, 2019, pp. 315-347.
장승현·이혁기, 「한국스포츠영화 내 여성 재현의 양상: 2000~2018 개봉작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35권 제3호, 2021, pp. 83-104.
최정은·이루지, 「스포츠영화에 나타난 여성 스포츠 이데올로기」, 한국스포츠 사회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3, pp. 447-463.
Pringle, R. Masculinities, “*sport, and power: a critical comparison of Gramscian and Foucauldian inspired theoretical tool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9-3, 2005, pp. 256-278.
장승현·이근모·이남미, 「종합격투기에서 재현되는 남성성의 상징체계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0, pp. 129-144.

3. 단행본

- 김창남 지음, 「영웅 없는 시대의 영웅 신화, 이현세의 까치」, 광대원 외, 『한국만화의 모험가들』, 열화당, 1996.
브루노 베텔하임 지음,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시공주니어, 1998.

일연 지음,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12.
임정식 지음, 『스포츠영웅의 비밀』, 태학사, 2018.
주디스 스와들링 지음, 김병화 옮김, 『올림픽 2780년의 역사』, 효형출판, 2004.
조동일 지음, 『민중 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지음,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크리스토퍼 보글러 지음, 함춘성 옮김,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비즈니스비즈, 2013.

4. 기타 자료

정한석, 「미숙 씨는 어떻게 됐을까?」, 『씨네21』, 2008, 01, 3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49987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443&keyword=꿈은 사라지고.

(투고일: 2022. 11. 27 심사완료일: 2022. 12. 22 게재확정일: 2022. 12. 23)

임정식
소 속: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전자우편: dada8847@naver.com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the Narrative Meaning of The
Female Characters in 2000's Sports Films**
- Focusing on <Lifting Kingkong>

Im, Jeong-Sig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sports films before 2000 played submissive supporting or minor roles. Most of them were sacrificial roles to highlight the male heroes. Since 2000,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sports films have played the independent free-spirited heroines who have made their ways through adventures and challenges. They have saved and helped the male characters in the middle of frustration, and finally led the males to mental rebirth. The female characters in 2000 sports films are characterized by 1) the appearance of national leading heroines, 2) female teenage athletes, 3) active supporters.

In the film <Lifting Kingkong>, Youngja, the complex character of the heroine and supporter, is a symbolic female character. Most of the female characters of 2000 sports films are orphans born of poor family and suffer from injury and class segregation. In face of this social prejudice, they fight and overcome the hardships. Not all of them succeed in their struggle but, at least, achieve inner maturity and spiritual rebirth. It is noteworthy to observe the change of the female role in 2000 sports films as the savior of the male characters. To sum up, <Lifting Kingkong> narrates the life of a heroic heroine.

Key words: sports films, female character, epic hero, supporter,
<Lifting Kingkong>